

美 새 군대 '우주군' 창설... "중·러 위협 대처"

육해공군 등 이어 6번째 창설 우주서 미국 우위 유지 목적 비행사 등 1만6000명 배치

미국이 70여 년 만에 새로운 군대인 '우주군' 창설에 필요한 입법을 완료하며 우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준비를 본격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근 주창해온 우주군 창설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담겨 통과된 뒤 지난 20일(현지시간) 대통령의 법안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끝난 것이다.

우주군은 미국의 5군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은 6번째 군대다. 1947년 공군이 육군에서 떨어져나와 별도 군으로 창설된 이후 72년만에 미

국에 새로운 군대가 생긴 것이다. 우주군은 우선 지난 8월 공군 산하에 설치한 우주사령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우주군 책임자는 현 우주사령부 사령관인 제이 레이먼드가 맡는다.

우주사령부는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1985년 미사일 방어와 감시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공군에 설립됐지만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테러와의 전쟁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2002년 통합전략사령부로 합쳐졌다. 그러다가 우주군 창설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우주사령부를 먼저 출범했다.

인터넷매체 북스뉴스는 레이먼드 사령관을 인용해 1만6000명가량의 현역 비행사와 민간인이 우주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AP통신은 우주군은 우주사령부에 병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우주군과 우주사령부 간 책임과 자산 분할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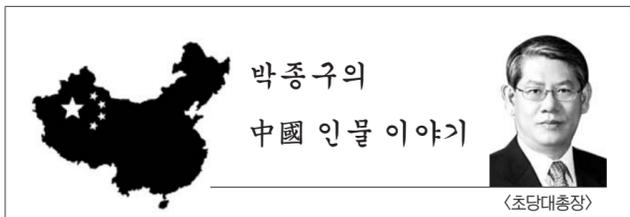
우주군은 육·해·공군처럼 별도 부처가 아니고 공군 장관의 관리를 받지만 4성 장군인 우주군 책임자는 합동참모본부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지만 합참에서 독자적 대표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우주군은 이름과 달리 실제로 우주 전쟁을 준비하거나 우주에 전투 병력을 배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우주 개발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고 우주 영역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보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군사 분야에서도 우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일례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인공위성은 군대가 정확히 목표를 타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인공위성은 적국의 미사일 발사 탐지 등 정보를 수집하며, 통신이나 기상 정보 수집용으로도 활용된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위거나 충돌 시 미국과 동맹의 인공위성을 교란 내지 파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착수했다면서 "미국은 우주 작전의 자유에 심각하고 커지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 우주군과 비슷한 전략 지원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법안에 서명하면서 "우주는 전 세계의 새로운 전쟁 영역"이라며 "우주에서 미국의 우위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앞서 있지 않다면 충분히 앞서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오늘날 우주공간은 전쟁의 영역으로 발달했다"며 우주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우주군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12〉 구양수

구양수(歐陽脩, 1007~1072)의 자는 영숙(永叔)으로 강서성 여류 출신이다. 북송의 학자 겸 정치가로 당송 8대가의 한명이다.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4세때 부친을 잃었다. 가난해 문구를 살 돈이 없어 모친이 모래 위에 갈대로 글씨를 써서 훈육했다. 유명한 화적교자(畫妓敎子)의 일화다. 1030년 진사과에 합격했다. 1036년 범종엄을 변호하다 재상 여이간에게 밀려 이릉 현령으로 좌천되었다. 약 10년간의 지방관 생활을 거친 후 중앙에 간관으로 복귀했다. 범종엄, 부필 등과 함께 경력신정(慶曆新政)을 추진했다가 안휘성 자사로 좌천되었다. 재차 중앙으로 돌아와 권지에 부끄러워, 개부 부윤을 역임했다. 한림학사겸

다. 둘은 고문 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평생 뜻을 같이하는 동지적 관계였다. 구양수가 신법을 반대하자 왕안석은 선배를 맹렬히 공격했다. 개인적 관계보다 국가지사, 사직이 더 소중하다는 왕안석의 소신이 낳은 행동이다.

초년시절 그는 화려한 사육신체 문장에 뛰어났다. 한림학사 서언이 그의 글을 보고 칭찬해 말하기를 "그대는 반드시 세상에 이름을 날릴 것이다." 그를 자신의 문하생으로 삼아 공부시켜 진사과에 합격시켰다. 서언은 그를 자신의

북송 학자·정치가... 당송 8대가

사관수찬과 주필부사를 거쳐 부재상인 참지정사에 오른다. 왕안석의 신법이 시행되자 1071년 정계를 은퇴했다. 1072년 안휘성 영주에서 세상을 떠났다. 신종은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하사했다.

당송 8대가의 일인으로 뛰어난 문인이었다. 송나라의 미문인 서문체를 개척하였다. 북송의 고문(古文) 운동의 주역이 되었다. 당나라의 한유를 예를 따라 화려한 문체를 피하고 실질적이고 강건한 문체를 숭상했다. 증공, 왕안석, 소순, 소식, 소철 등을 발탁했다. 품행이 단정한 선비였지만 풍류를 즐긴 줄 알았다. 유머도 풍부했다. 가무와 어색을 즐겼다. 말년에 스스로 육인거사(六一居士)로 칭했다. 집고록 1000권, 장서 1만권, 가야금 하나, 장기 하나, 술 한 주전자 그리고 늙은이 하나를 합치면 여섯 종류의 일이 된다는 의미다.

산문으로는 취옹정기(醉翁亭記)가 유명하다. 중국 최고의 기행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취한 노인의 진정함 뜻은 술에 있지 않노라(醉翁之意不在酒)"라는 구절은 대표적 명구다. 글쓰기에 관해서는 다독(多讀), 다작(多作), 다량(多量) 즉 많이 읽고 쓰고 고치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왕안석과 소식을 특별히 아꼈다. 소식은 1056년 진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당시 시험관이 구양수였

둘째 딸과 혼인시켰다. 인종 지화 연간(1054~56) 반대파들이 거저 상주문을 만들어 지방관으로 파직시켰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죄를 역설하므로 인종이 한림학사로 발탁했다. 지방으로 좌천된지 12년만의 일이다. 인종은 주변에 천하를 경영할 인물이 없음을 한탄하였는데, 부필, 한기, 구양수가 그의 뜻에 부합할 수 있었다.

구양수가 권지공공이 되었는데 당시 진사과 시험에서는 글을 쓸 때 기교를 숭상했다. 이를 못마땅이 여겨 과거 응시자의 답안지를 채점할 때 과거의 제자백가(諸子百家) 형식과 부합한 답안지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조정에서 원성과 비방이 이어졌으나 이후 고문체를 쓰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구양수는 "내가 도를 공부하지 30년, 얻은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원망과 미움을 지니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했다. 범종엄을 변호하다가 재상 여이간의 미움을 받아 멀리 삼엄으로 좌천되어 수년간을 지방관으로 근무했다. 여이간이 재상직을 물러선 후 여야 중양(中陽)의 요직에 기용되었다. 그가 여주자사로 재직시 여단의 아들 여공제가 통관으로 있었다. 인품이 훌륭하고 근실하였으나 과묵하였던 까닭에 남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후 중앙으로 복귀한 후 여공제를 강력히 추천해 요직에 기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선물 주는 태국 산타 코끼리 23일 태국 방콕 북부 아우타야의 한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린 가운데 산타 북장을 한 코끼리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교황 "신앙 조롱받는 시대...가톨릭 새 패러다임 필요"

바티칸 관료들에 변화 촉구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지역에서조차 가톨릭이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며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한 새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pa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교황은 21일(현지시간) 교황청 관료 조직인 '쿠리아'(Curia)를 대상으로 한 연례 성탄 강론에서 "우리가 더는 그리스도교 체제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히 유럽, 서구의 대부분에서 신앙이 더는 일상적 삶의 뚜렷한 전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 반대로 신앙은 부정되고 조롱당하며 소외되고 비웃음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세속화된 서구에서 가톨릭이 점점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대적 변화에 순응해야 교회를 다시 매력적으로 만들고 복음화(예수의 소식을 널리 알리는 일) 임무도 완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더는 그리스도교 세상에 있지 않다"며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지도,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날 발언은 전임자인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도 16세의 견해를 다시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생물다양성 보고'

갈라파고스에 기름 유출 에콰도르 비상사태 선포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22일(현지시간)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디젤유 600갤런(2271 l)을 실은 바지선이 갈라파고스의 주도인 산 크리스토폴 항구에서 침몰하면서 발생했다. 바지선에 컨테이너를 싣던 중 크레인이 넘어졌고, 이로 인해 배가 균형을 잃고 가라앉으면서 기름이 유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라울 레데스마 환경장관은 기름 유출 사고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지시했고, 갈라파고스 국립공원과 에콰도르 해군, 경찰이 합동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 레데스마 장관은 트위터에서 "환경 위협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측도 "군인들과 환경운동가들이 (기름) 차단막을 세우고, 흡착포로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에콰도르 동쪽 해안에서 1천km 떨어진 태평양에 있는 갈라파고스 군도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이 1859년 이곳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종의 기원'을 썼다. /연합뉴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세대 부유층 가구에 2억~4억 원의 저금리 대출
- 저소득층에게 생애 첫 주택 담보대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 65세 이상 조부모를 부양하는 노인에게 1000만 원 지원
-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영실태를 돕는 지원센터 설치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	---------------	---------------	----------------	---------------	---------------